



萬波息笛 설화의 역사적 의미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Legendary Tale 「Manpasikjeok」

저자 (Authors)	김남형 Kim Nam-hyeong
출처 (Source)	한국학논집 38 , 2009.6, 171-194 (26 pages)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38 , 2009.6, 171-194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Academia Korean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05836
APA Style	김남형 (2009). 萬波息笛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38, 171-19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0 10: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萬波息笛 설화의 역사적 의미

김 남 형

『三國遺事』에 실린 「萬波息笛」은 神文王 즉위 초기에 신라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행한 국가적 祭儀에 근거를 둔 설화이다. 이 說話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海中龍이 된 文舞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이 마음을 합쳐 내려준 것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대나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대나무가 한국·중국 등의 전통 음악에서 12律 算定의 기준 척도가 되며, 나아가 度·量·衡器 제작의 기준 尺이 되는 黃鍾管 제정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신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神을 섬길 수 있고 上下가 화합할 수 있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며, 우주적 질서를 인간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도구 제작에 있어 기준 척도가 되는 黃鍾管 제정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행사였던 것이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海中龍(문무왕)과 天神(김유신)이 合心하여 내려준 대나무로 만든 黃鍾管은 天地 자연의 조화를 통일신라 사회에서 구현하여 高古려와 百濟의 유민을 통합하고, 왕실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정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신라 지배층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파식적 설화는 삼국시대 관악기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신라가 唐樂을 수입하고, 삼국통일 후 高古려와 百濟의 음악을 수용하여 신라 나름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단어 : 문무왕, 김유신, 祭儀, 만파식적, 黃鍾管, 神文王, 和諧

1. 서론

『三國遺事』卷第2, 紀異第2에 실려있는 「萬波息笛」은 설화 형식의 역사적 배경이 된 삼국 통일 직후의 미묘한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범상치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三國史記』¹⁾ 『新增東國輿地勝覽』²⁾ 『林下筆記』³⁾ 등 근대 이전의 여러 문헌에서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된 기사와 시문이 여러 편 발견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1970년대 이래 국학계의 비상한 주목⁴⁾을 받아온 것은 바로 이 설화가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 1) 『三國史記』, 卷第32, 雜志第1, 「樂」三竹 : 古記云 神女(女 當作文 見遺事)王時 東海中忽有一小山 形如龜頭 其上有一竿竹 晝分爲二 夜合爲一 王使斫之作笛 名萬波息 雖有此說 怪不可信
-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第21, 慶州府, 「古跡」, 萬波息笛 : 神文王時東海中有小山浮來向感恩寺隨波往來王異之汎海入其山上有一竿竹命作笛吹此笛則兵退病愈旱雨雨晴風定波平號萬波息笛歷代傳寶之至孝昭王加號萬萬波波息笛
- 3) 李裕元, 『林下筆記』, 卷第38, 「萬波息笛」 : 兵退病痊雨雨晴 一吹呈異寶東京 小山浮到山生竹 萬萬波波息以名 神文王時 小山浮海 上有一竿竹 命作笛 吹則兵退病愈 旱雨 雨晴 風定 波平 恩以名之
- 4) 만파식적 설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태. 1973. 「만파식적 설화고」,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서정범. 1975.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 『한국민속학』 8. 민속학회; 황패강. 1975. 『한국불교설화연구』. 일지사; 김상현. 1981.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장장식. 1986.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국제어문』 6/7합. 국제대학교 국제어문연구회; 두창구. 1990.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합. 강원도민속학회 · 강릉무형문화재연구소; 윤철중. 1991. 「만파식적설화연구」, 『대동문화연구』 26. 성균관대학교; 김영숙. 1992. 「만파식적설화의 전승과 시적 변모 양상」,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 서경문화사; 한기호. 2001. 「만파식적설화연구」, 『연민학지』 9; 안병국. 2003. 「만파식적 설화의 문단 구분과 용의 정체」, 『자하어문논집』 18; 서유석. 2005. 「만파식적 설화의 건국 신화적 의미 연구」, 『인문학연구』 9; 박진태. 2008. 「만파식적 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 125.

지금까지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하여 학계에 보고된 중요한 성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설화를 신라의 전통적인 호국불교신앙과 관련시켜 논의하면서 삼국통일에 대한 감사, 守城을 위한 경계, 문무왕과 김유신에 대한 찬양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⁵⁾하거나, 호국 불교 설화로 이해하면서 호국 용신에 대한 신앙적 측면에서 해석⁶⁾한 논고, 둘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설화가 예악사상에 기반을 둔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⁷⁾한 논고, 셋째 이 설화의 서사구조와 당시의 음악사 및 정치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설화를 통일 직후 신라의 정치 문화, 음악 문화, 제사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문화기호인 것으로 이해⁸⁾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밖에 민속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지에 전승되고 있는 설화에서 만파식적 설화의 원형을 찾으려는 시도⁹⁾가 있었으며, 渡來神話的 측면에서 검토하여 만파식적이라는 국보의 神聖性 강조, 당대의 시대 상황 반영 등을 이 설화에 담긴 의의라고 파악한 논고¹⁰⁾와 통일 신라 건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화라는 시각에서 이 설화의 역사적 의미를 해명¹¹⁾한 논고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업적 가운데 박진태 교수의 「만파식적 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와 김상현 교수의 「萬波息笛 說話의 形成과 意義」는 만파식적 설화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의의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 두 논문을 위시한 기존 논문들

5) 김영태. 전계 논문.

6) 황패강. 전계서.

7) 김상현. 전계 논문.

8) 박진태. 전계 논문.

9) 서정범. 전계 논문.

10) 윤철중. 전계 논문.

11) 서유석. 전계 논문.

의 논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설화에 문무왕·김유신 등 삼국통일의 주역 및 이들의 이념을 계승한 신문왕·효소왕 등 구체적 인물과, 대왕암·감은사·이전대라는 구체적 장소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설화가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가적 차원의 祭儀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¹²⁾하고 그 역사적 진실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萬波息笛」의 구성

만파식적 설화는 一然에 의하여 『삼국유사』에 정착되기 이전에 이미 내용의 일부 혹은 관련 기사가 『古記』, 『삼국사기』, 『別傳』, 『感恩寺 寺中記』 등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 설화가 문헌설화로 정착된 시기는 설화형성의 배경이 된 신문왕 2년(682)으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元聖王代(785~798) 이후일 것¹³⁾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기사는 설화 형성의 원천이 된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형성에 관여한 자의 의도와, 전승 과정에 전승자들의 願望이 개입하여 일정한 변개를 거쳐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설화가 지닌 역사적 진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번거롭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萬波息笛」전문의 서사 단락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윤철중 교수는 『한국의 시조 신화』(보고사, 1998) 212쪽에서 신문왕의 利見臺 行幸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祭儀에 참여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3) 김상현. 전계 논문. 4쪽.

(1) 제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政明이고, 성은 김씨이다. 開耀 원년 辛巳(681) 7월 7일에 즉위하였다. 聖考 文武大王을 위해 동해 가에 感恩寺를 세웠다. (절에 있는 기록에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이 절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다 짓지 못하고 붕어하여 海龍이 되고, 그 아들 신문왕이 왕이 되어 開耀 2년(682)에 낙성하였다. 금당 섬들 아래 동쪽으로 굴이 뚫려 있는데 그것은 용이 들어와서 서리고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遺詔에 의해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고 절 이름도 感恩寺라고 하였다. 후에 용의 現形을 본 곳을 利見臺라고 이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그 이듬해 5월 초하루에 (어떤 책에는 天授 원년(690)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해관 파진찬 朴夙淸이 와서 ‘동해에 한 작은 섬이 감은사 쪽으로 떠내려 와서는 물결을 따라 오락가락한다’라고 아뢰었다. 왕은 신기하게 여기고 日官 金春質(어떤 책에는 春日로 되어 있다)에게 점을 치도록하니 아뢰기를 “돌아가신 선왕께서 지금 바다 용이 되시어 三韓을 둘러 지키고 계십니다. 또 金庾信 공은 본래 33 天의 한 아들로서 금생에 인간세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지킬 寶器를 주시려하오니 만일 폐하께서 해변으로 가시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3) 그달 7일에 왕이 이견대에 행차하여 그 산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산세는 마치 거북이 머리같고 그 위에 한 그루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들이고 밤에는 합하더’라고 하였다.(일설에는 산도 역시 밤낮으로 대나무처럼 開合했다고 한다) 왕은 감은사에 가서 묵었다.

(4) 이튿날 午時에 그 대나무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 때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 불고 비 내려 7일동안 어두컴컴하였다.

(5) 그달 16일에 이르러서야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玉帶를 받들고 와서 바

쳤다. 왕이 맞이하여 함께 앉아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혹 합쳐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용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는 본시 합한 이후에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대왕께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은 이 대나무를 가지고 가서서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십시오. 그러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제 왕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천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보배를 내시고 저로 하여금 왕께 바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놀라고 기뻐서 오색 비단 및 금과 옥으로 용에게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게 하였다. 왕 일행이 바다에서 나오자 이때 산과 용이 홀연히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다.

(6) 왕이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17일에 祇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태자 理恭(즉 孝昭大王)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축하하고, 천천히 살펴보는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다. 태자가 아뢰기를 “그 옥대의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담그고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 둘째 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담그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곳은 못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곳을 ‘龍淵’이라고 불렀다.

(7) 어가가 궁으로 돌아온 뒤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간직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 때는 비가 그치며, 바람은 자자지고 물결은 잔잔해졌다. 이 피리를 ‘萬波息笛’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8) 孝昭大王 代에 이르러 天授 4년 癸巳(693)년에 夫禮郎이 살아 돌아온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 피리를 다시 萬萬波波息笛이라고 하

였다. 자세한 것은 그 전기에 보인다¹⁴⁾.

「만파식적」 전문의 구조와 각 서사단락의 구체적 의미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밀도있게 논의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단락의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만파식적」 전문을 일별할 때 만파식적 설화는 모종의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풀어진 국가적 규모의祭儀에,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요긴하게 쓰일 도구를 얻은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위의 단락은 크게 (1), (2)(3)(4)(5), (6)(7)(8)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神文王에 대한 간략한 인정 기술과 感恩寺, 大王巖, 利見臺의 위치와 유래를 밝힌 (1)은 제의의 주체 및 제의가 베풀어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삼국통일의 聖業을 완수하고 죽어서도

14) 『三國遺事』, 卷 第2, 紀異 第2, 「萬波息笛」: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金氏,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即位,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排, 金堂, 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明年壬午五月朔, (一本云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珍, 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占之, 曰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庚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行幸海邊, 必得無價大寶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 夜合一, (一云, 山亦晝夜開合如竹)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迎接共坐, 問曰, 此山與竹或判或合如何, 龍曰, 比如一手拍之無聲, 二手拍則有聲, 此竹之爲物, 合之然後有聲, 聖王以聲理天下之瑞也, 王取此竹, 作笛吹之, 天下和平, 今王考爲海中大龍, 庚信復爲天神,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 令我獻之, 王驚喜, 以五色錦彩金玉酬賽之, 勅使斫竹出海時, 山與龍忽隱不現,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膳, 太子理恭(即孝昭大王)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 皆真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攜一沈水示之, 乃攜左邊第二沈溪, 即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駕還, 以其竹作笛, 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息笛, 稱爲國寶, 至孝昭大王代, 天授四年癸巳, 因失禮郎生還之異, 更封號曰萬萬波波息笛, 詳見彼傳.

護國大龍이 되어 신라를 수호하려한 문무왕의 아들로,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왕위를 계승한 神文王이 祭儀의 주체이고, 문무왕의 시신을 유언에 따라 화장하여 유골을 갈무리한 東海邊의 작은 바위섬인 大王巖, 문무왕이 용이 되어 나타난 것을 본 利見臺, 畜生인 海中龍으로 환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선왕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창건한 感恩寺 일대가 祭儀의 무대임을 암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祭儀가 호국의 聖所에서 베풀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3)(4)(5)는 祭儀의 경과를 일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2)는 祭儀 거행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락이다.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사후 海中龍이 된 文武王과 天神으로 귀환한 金庾信이 마음을 합쳐 守城을 위한 큰 보배를 내어주려는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祭儀를 거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무왕과 함께 김유신이 등장한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유신은 신라 중기 무열왕계 성립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문왕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삼국통일의 주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무왕과 김유신이 사후에도 힘을 합쳐 통일신라를 지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大寶를 내어, 신문왕에게 내려주게 된 것은 신문왕이 통일된 신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의한다.

(3)(4)(5)는 대왕암 일대에서 거행된 제의의 구체적 진행과정을 설화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이 부분에 제시된 장면들은 祭儀에서 설정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3)의 山은 祭儀의 중심 공간으로 문무왕의 장골처인 大王巖일 것¹⁵⁾이다. 이 산의 낮에는 둘이다가 밤에는 합쳐져 하나가 되는 대나무는 (2)의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와 (5)의 “二聖同心 出此無價大寶”로 미루어 二聖, 즉 海

15) 한기호, 전계 논문, 81쪽 참조.

龍이 된 문무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의 靈이 의탁하고 있는 祭儀의 상징물로 판단된다. 이 두 성인의 영이 깃든 대나무가 낮에는 둘, 밤에는 하나가 되는 것은, 이승에서 임금과 신하라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면서 삼국통일의 大業을 완수한 삼국통일의 두 주역이 靈界에서 하나가 되었음(同心同德)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祭儀에서는 7일 밤에 두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화합굿을 행하였을 것이다. 7일간 “天地震動 風雨晦暝”이라는 혼돈 상황이 지속된 것은 靈界의 의지가 現象界에 구현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과정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靈界-靈界와 現象界의 혼효-現象界」라는 과정에서 靈界와 現象界가 혼효된 무질서 상태인 셈이다. 이러한 祭儀의 상황은 문무왕과 김유신이라는 靈界의 二聖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자신들의 호국이념을 계승하여 守城할 수 있는 ‘無價大寶’가 현상계의 신문왕에게 전달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과정으로, 祭儀의 절정을 향해 가는 고조된 분위기와 팽팽한 긴장감을 수반한다.

(5)는 祭儀의 절정이자 이 설화의 핵심¹⁶⁾이 되는 부분이다. (5)에 등장하는 용은 海中龍이 된 문무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을 대리하여 흑옥대와 ‘無價大寶’가 될 대나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 祭儀에서는 제의를 주관하는 國巫가 이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점은 신문왕이 흑옥대를 바치고 대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용에게 그 대가로 비단과 금·옥을 준 행위를 ‘酬養’로 표현한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祭儀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관건은 흑옥대와 대나무가 지닌 역사적 내지 현실적 의미를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신문왕이 배를 타고 산에 갔을 때 사자용이 왕에게 검은 옥대를 먼저 봉헌하고,

16) 안병국, 전계 논문, 153쪽 참조.

신문왕이 이 옥대를 받고 난 뒤에 사자용의 언설을 통해 문무왕과 김유신이 내리는 신대의 정체가 밝혀진다. 사자용이 봉헌한 흑옥대가 지닌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논고¹⁷⁾들이 해명하고 있듯이 진평왕의 天賜玉帶와 같은 의미를 지닌 神物로 무열왕계 왕권의 정통성과 신성성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자용이 산에 올라온 신문왕에게 흑옥대를 봉헌하는 행위는 신문왕이 무열왕계 왕통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인정하는 절차이고, 이 절차는 문무왕과 김유신이 내려준 守城의 大寶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흑옥대 획득이 대왕암 일대를 무대로 국왕이 참여한 가운데 10여일간 행해진 국가적 祭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 祭儀의 목적은 (2)에서 ‘守城之寶’라고만 하고, (3)에 와서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 대나무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無價大寶’인 까닭은 ‘以聲理天下’ 할 수 있는 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현 교수는 만파식적 설화가 지닌 政治思想史的 意義를 검토하면서 신문왕대에 이르러 국학이 설립되고 強首, 薛聰 등 유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禮記』를 중시하는 등 유교적 정치이념을 중시하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논증하고 ‘以聲理天下’를 다음과 같이 유교적 예악사상과 관련시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특히 신문왕의 정치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聖王이 소리으로써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유교의 예악사상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聖王이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瑞徵이라고 한 말은 「儒教經國思想의 안목인 예악」으

17) 김상현, 전계 논문, 9쪽을 위시한 만파식적 설화를 논제로 한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로써 치국의 방편을 삼고자 했던 정치적인 이념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⁸⁾.”

필자는 만파식적 설화의 핵심이 바로 ‘以聲理天下’에 있으며 그것은 「유교적 예악 사상에 기반한 정치적 이념의 강조」라고 이해한 김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무왕과 김유신이 내려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면 천하가 평화로와 진다’는 설화의 문맥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유교적 예악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대나무가 지닌 현실적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 대나무를 한국·중국 등 한자 문화권의 전통 음악에서 12律 算定의 기준 尺度가 되며, 나아가 度·量·衡器 제작의 기준 尺이 되는 黃鍾管 제작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판단한다. 말하자면 대왕암 일대에서 10여 일간 거행한 국가적 祭儀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黃鍾管을 제작하는데 쓰일 대나무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조정에서 연주하고 郊廟의 제사에 올려 神과 人이 화합하게 할 수 있으며, 性情을 기르고 인재를 육성하며 神祇를 섬기고 上下가 화합할 수 있’¹⁹⁾는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일 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의 질서를 인간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기준 척도가 되는 黃鍾管 제정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행사였던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려 한다.

(6)(7)(8)은 전승되는 과정에 첨가되어 만파식적 설화의 일부로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에서, 신문왕 2년은 太子 理恭이 아직 태

18) 김상현, 전계 논문, 20~21쪽.

19) 『小學集註』, 卷1, 「入教」第一, “舜命契曰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教 在寬 命夔曰 命汝典樂 教胥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 言志 歌 永 言 聲 依 永 律 和 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의 集解: 人聲既和 乃以其聲 被之八音 而爲樂則無不諧協而不相侵亂 失其倫次 可以奏之朝廷 薦之郊廟 而神人 以和 聖人作樂以養性情 育人材 事神祇 和上下 其體用功效 廣大深切 乃如此.

어나기 전임으로 태자와 관련된 내용은 허구이다. 다만 黑玉帶가 무열왕계 왕권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문왕의 뒤를 이을 태자(孝昭王)의 신비로운 지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문무왕에서 신문왕을 거쳐 효소왕으로 이어지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강조²⁰⁾하려는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8)의 경우 만파식적의 위대한 功效를 闡明한 것으로 만파식적 설화를 정착시킨 집단의 정치적 願望과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무왕과 김유신의 靈이 깃든 대나무로 만든 黃鍾管을 기준척도로 하여 제작한 악기의 신비한 힘을 강조함으로써 무열왕계 왕권의 정당성을 천명하려는 의도에서 침입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Ⅲ. 黃鍾管制定의 意義와 역사적 배경

1. 黃鍾管制定의 理念과 정치적 의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유교적 예악 사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언술로 봄이 온당하며, 이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위해서는 儒家의 樂律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禮記』 「樂記」에서는 ‘人心이 외물에 감촉되어 움직이면 聲으로 표현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소리가 서로 조응하여 일정한 질서를 갖추면 音이 되며, 音을 안배하여 악기로 연주하고 방패·도끼·깃

20) 안병국. 전계 논문. 156-157쪽.

털 등을 잡고 춤추는 것이 樂²¹⁾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聲은 心이 外物에 감촉되어 動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정한 절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한한 욕망의 추구로 이어져 사회
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요함은 자연의 본성이고 외물에 감촉되어 움
직이는 것은 본성의 욕구이다. …… 중략 …… 무릇 외물이 사람을
감각시키는 것은 무궁한데,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절제하
지 않으면 외물이 이르렀을 때 사람이 외물에 의해 변화된다. 사람
이 외물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은 天理가 없어지고 人欲을 끝까지 추
구하는 것이다. 이에 悖逆하고 속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淫泆하고
작난하는 일이 있게 된다.²²⁾

주지하듯이 性은 생래적으로 宇宙的 理法을 갖추고 있어 고요하면
서 純善無惡한 존재이나, 이것이 외물에 감촉되어 動한 情은 有善有
惡한 존재이어서 적절히 절제하지 않으면 외물에 이끌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타고난 天理를 잃어버리고, 한없이 人欲을 추구하여 개인
을 타락시키는 물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따라서 감정의 발산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개인과 사회를 구제할 수 있다. 이 점은 『中庸』
首章의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이 發하지 않은 상태를 「中」이
라하고 發하여 다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 「中」은 天下의
큰 근본이요 「和」는 天下의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道다. 中和의 德

21) 『禮記』 「樂記」 卷 第19 :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
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于戚羽旄, 謂之樂.

22) 上同.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物至知知, 然後好惡形焉. 好惡
無節於內, 知誘於外, 不能反躬, 天理滅矣. 夫物之感人無窮, 而人之好惡無節, 則是
物至而人化物也. 人化物也者, 滅天理而窮人欲者也. 於是悖逆詐僞之心, 有淫 作
亂之事.

을 극진히 하면 天地가 제자리하며 만물이 길러진다²³⁾.”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情의 소산인 인간의 聲音은 그 한없는 표현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여 절도에 맞게 표출하여야 천하의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두루 통하는 和諧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인간의 聲音을 적절히 절제하여 「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樂이다.

“선왕이 禮樂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절제하게 한 것이다. 衰麻와 哭泣은 喪事를 절제하는 것이고 鐘鼓와 干戚은 安樂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 중략 ……禮로 백성의 마음을 절제하고 樂으로 백성의 聲을 조화롭게 하며, 政으로 그것을 행하고 刑으로 그것을 방지하여 禮·樂·刑·政이 사방으로 미치어 어그러지지 않으면 王道가 갖추어 진다.²⁴⁾”

윗글에 의하면 사람들이 安樂을 좋아하여 한없이 安樂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鐘鼓·干戚이란 樂을 통해 조화롭게 조절하며, 이러한 기능을 가진 樂은 王道政治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절제하여 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樂은 질서와 조화라는 천지자연의 理法을 체득하여 그것을 인류 사회에 구현할 수 있게 節文하는 능력을 지닌 聖人만이 만들 수 있다. 聖人이 제정하여 天地의 조화로운 기운과 함께 할 위대한 樂²⁵⁾을 담아낼 도구인 악기 또한 천지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울을 산정하는 尺度管이 되는 黃鍾管의 제정이 음악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3) 『中庸』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 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24) 『禮記』 「樂記」 卷 第19 : “是故先王之制禮樂，人爲之節：衰麻哭泣，所以節喪紀也；鐘鼓干戚，所以和安樂也；昏姻冠笄，所以別男女也；射鄉食饗，所以正交接也。禮節民心，樂和民聲，政以行之，刑以防之，禮樂刑政，四達而不悖，則王道備矣。”

25) 上同 “大樂與天地同和，大禮與天地同節”

이상적인 黃鍾管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전설적인 제왕인 黃帝때부터 시작되었다. ‘黃帝가 伶倫에게 音律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자 伶倫이 大夏의 서쪽에 있는 崑崙山의 북쪽 嶰谷에서 나는 대나무 가운데 두께가 고른 것을 베어내어 그것을 불어 황종관을 만들었다²⁶⁾’는 전설이 그것이다. 영윤이 머나먼 서쪽 변방의 靈山인 곤륜산까지 가서 대나무를 취하여 황종관을 제작한 것은 靈山에서 나는 대나무 이어야 천지 자연의 理法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律管이 될 수 있다는 樂律觀때문일 것이다. 三代에는 이처럼 천지의 조화에 조응하는 성인의 음악이 존재하였으나 漢代이후 전해지지 않은 것은 秦始皇이 그때까지 전해내려오던 음악 관련 기록들을 모두 불태웠기 때문²⁷⁾이다. 漢代이래 京房(BC.77~37), 何承天(370~447), 蔡元定(1125~1198) 등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허다한 樂律論들은 바로 三代의 음악을 회복하기위한 탐색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黃鍾管 制作法이었다. 대나무로 律管을 만들고 이 管에 기장알을 담아 황종관을 정하는 『漢書』 「律曆志」의 ‘以黍定律法²⁸⁾’이나, 일년 열두달의 절기에 따라 변하는 地氣를 이용하여 律尺을 정하는 候氣之法²⁹⁾ 등은 모두 古樂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와같은 황종관 제정법은 ‘천연의 물건을 천연의 그

26) 『文選』, 卷 5. 賦丙, 京都下「左太冲吳都賦」注 “善曰 嶰谷 崑崙北谷也 黃帝詔伶倫爲音律 伶倫乃之崑崙陰 取嶰谷之竹 斬其原均者而吹之爲黃鍾之管”

27) 『增補典猶堂全書』, 537쪽. 樂集, 「樂書孤存 一」(경인문화사, 1981). “六藝之學 遭秦皆滅 滅而復興者五 其不復興者一 樂是已”

28) 上同. 547쪽. 「辨以黍定律本不合理」 “漢書律曆志云 度者 分寸尺丈引也 本起黃鍾之長 以子穀秬黍中者 一黍之廣 度之九十分 黃鍾之長”

29) 張師勛. 1984. 『國樂大事典』, 세광출판사. 851쪽. “候氣之法은 1년 12달 節氣에 따라 음률을 정한 방법인데, 12支와도 관계가 있는 神秘的인 것으로 漢代의 易學者요 音律學者인 京房이 세검으로 벽을 싼 律室을 만들고 그 속에 12律管을 12方位에 따라 放射線 형상으로 배열하고 엷은 비단으로 덮은 다음 울관 속에 中秋 白露에 채집한 갈대 청(菴葶)의 재(灰)를 넣어 두면 매 달의 節日에 차례대로 各管이 하늘의 기운에 응하여 자연적으로 소리가 난다고 함. 黃鍾管은 11월 冬至에 소리가 난다고 한다.

룻에 채우면 율관의 길이와 용량, 聲音의 高低, 율관의 무게가 모두 自然에서 생긴 것이고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中和의 소리가 나오고 大樂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³⁰⁾ 라는 陳暘의 언표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천지 자연의 조화에 조응하는 이상적인 樂律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서 律尺을 찾아야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장알을 이용하거나 候氣法을 써서 대나무로 된 황종관을 얻으면 이 관의 길이를 9寸, 지름을 3分으로 정한 다음 三分損益하여 나머지 11개의 律管을 제정하고, 또 이를 尺度로 度·量·衡器의 단위를 정하기 때문에 黃鍾管은 음악뿐만 아니라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이다.

萬波息笛 설화에서, 「地·陰」, 「天·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무왕과 김유신이 同心同德하였다는 것은 천지 자연의 和諧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합심하여 내려준 대나무는 천지의 조화에 조응하는 黃鍾管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천지 자연의 和諧를 통일신라라는 인간 사회에 구현하려는 신문왕을 위시한 당대 지배층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행된 국가적 祭儀에서 선택된 黃鍾管이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면 지상의 모든 대결과 부조화가 사라지고 조화로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만파식적을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병이 나으며, 가물면 비오고 장마지면 개이며, 거센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설화를 생산한 자들의 願望에 다름 아닐 것이다.

30) 『樂學軌範』, 卷1. 「十二律圍長圖說」 “樂書云 盖律以竹爲管者 天生自然之器也 以黍爲實者 天生自然之物也 以天生自然之物 實天生自然之器 則分寸之長短 容受之多寡 聲音之清濁 權衡之輕重 一本之自然而人爲不預焉 此中和之聲 所以出 而大樂所以成也”

2. 黃鍾管 制定의 역사적 배경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萬波息笛 설화는 儒敎的 王道政治의 불가결한 요소인 이상적인 음악과 度·量·衡器 제작의 기준 尺度가 되는 黃鍾管을 얻기 위한 국가적 祭儀의 상관물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면 神文王 즉위 초기에 황종관을 제정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만파식적 설화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해명³¹⁾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통일 신라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신문왕 대에 와서였다고 볼 수 있다. 문무왕 대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뒤에도 유민들의 반란과 부흥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뿐만아니라, 삼국을 모두 차지하려는 당나라의 군사적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에 국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나라가 고구려 고토를 지배하기 위해 평양에 설치한 安東都護府가 遼東省으로 물러난 676년까지는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內治에 힘쓸 겨를이 없었다. 물론 증가된 중앙관부의 업무와 확장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정비는 있었다. 그러나 문무왕 대의 제도정비는 삼국의 물리적 통합을 위한 기초 수립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통일된 신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삼국민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신문왕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래 吏部, 戶部에 해당하는 位和府(진평왕 3년), 倉府(진덕왕 5년)와 禮部(진평왕 8년), 兵部(법흥왕 3년), 刑部에 해당하는 左·右理方部(진덕왕 3년 및 문무왕 7년) 등 五部체제였던 중앙관제가 신문왕이 즉위한 뒤 工部에 해당하

31) 이 점에 대해서는 김상현, 전계 논문, 12-26쪽 및 박진태, 전계 논문, 535-548쪽에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되어 있다.

는 工匠部(신문왕 2년)와 例作部(신문왕 6년)가 차례로 설치됨으로써 6典 조직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며, 지방조직 또한 고구려·백제계 주민의 복속을 확실히 하는 九州·五小京制度를 확립한 사실³²⁾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신문왕이 즉위할 무렵에 이르러 전쟁이 종식되어 중앙과 지방의 통치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黃鍾管을 제정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이를 연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화합하고, 또 길이와 무게와 용량을 측정하는 도·량·형기를 통일함으로써 통치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합리적 公器로 정착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설화에는 무열왕·문무왕·신문왕·효소왕으로 이어지는 무열왕계 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³³⁾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 설화에는 무열왕 왕권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과, 삼국통일을 성취함으로써 무열왕계 왕권을 정착시킨 문무왕이 등장하고, 이들이 신문왕에게 통일신라를 지켜갈 큰 보배로 내려 준 것이 만파식적 제작의 재료가 된 대나무라는 점에서 무열왕계 왕권을 지켜가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화가 신문왕이 즉위한 직후 왕의 장인인 김흠돌을 비롯한 파진찬 興元, 대아찬 眞功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설화는 음악의 힘을 빌려 지배층 상호간의 반목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고 아울러 君臣간의 화합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관제설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音樂史的 측면에서 볼 때, 우선 7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에서 독자적인 黃鍾管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

32) 盧泰敦, 1984. 「新羅와 渤海의 發展」, 『한국사』 3. 탐구당. 35-50쪽.

33) 김상현. 전계 논문. 14-16쪽 참조.

각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조에 ‘이전에 가야국 가실왕이 12줄 弦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12달의 음률을 본 뜬 것이다. 이에 우륵에게 명하여 곡을 만들게 하였던 바,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에 귀의하였다. 그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다³⁴⁾.’ 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2달의 음률이란 黃鍾(11월), 大呂(12월), 太簇(1월) 등 12률을 일컫는다. 따라서 진흥왕대에 이미 12개의 律名과 기본 律이 되는 黃鍾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³⁵⁾고 보아야 한다. 또 「壬申誓記石」의 내용³⁶⁾에서도 악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망라된 『禮記』 「樂記」 또한 삼국 통일 이전에 신라 사회에 유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唐樂의 유입 또한 樂律에 관한 신라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영

34) 『三國史記』 眞興王 12年. “春正月 改元開國 三月 王巡守次娘城 聞于勒及其弟子 尼文知音樂 特喚之 王駐河臨宮 令奏其樂 二人各製新歌奏之 先是 加耶國嘉悉王 製十二弦琴 以象十二月之律 乃命于勒製其曲 及其國亂 操樂器投我 其樂名加耶琴”

35) 이와 관련하여 『東京雜記』 卷3에 수록된 「金尺院」이 주목된다. “府의 서쪽 25리 떨어진 곳에 있다. 시속에 전하기를 ‘신라왕이 金尺 하나를 얻었는데 사람이 죽거나 병들었을 때 이 자로 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소생하여 나라의 보배가 되었다. 중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金尺을 요구하였으나, 신라왕이 주지 않으려고 이곳에 숨기고 산을 30여개나 만들어 숨겼다. 그리고 院을 세웠기 때문에 金尺院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혹은 신라 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꿈에 神人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자를 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문무에 뛰어나고 神聖하여 백성이 우러러 본지 오래되었다. 이 황금자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으라’ 라고 하였는데 꿈에서 깨니 황금자가 손에 들려 있었다. (在府西二十五里 俗傳 羅王得一金尺 人死人病 以此尺之 則死者生 病者蘇 爲國所寶 中國聞之 遣使求之 羅王不欲與之 藏於此 造山三十餘以秘之 因立院舍 故名焉 或云 新羅始祖微時 夢見神人 自天而來 以金尺授之曰 汝聖神文武 民望久矣 持此金尺 以正金甌 夢覺 則金尺在手云)” 이 설화의 「尺」은 만파식적 설화의 「笛」과 같은 신통력을 지니고 있는 동질의神器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인들이 이상적인 음악과 이상적인 척도의 사회적, 정치적 효용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상적인 황종관이 제정되어야 우주 자연의 理法을 음악과 度·量·衡·器라는 公器를 통해 인간사회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악률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壬申年六月十六日 …… 又別失辛未年七月二十日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데 문무왕4년(664)에 貴幢第監인 星川과 丘日 등 26인을 府城에 보내어 唐樂을 배우게 했다는 기사³⁷⁾가 있고, 진덕왕 이래 唐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12律을 활용한 전통적 의식음악도 유입되었음직하다. 특히 神文王 이후 신라왕의 책봉과 弔祭에 황제가 파견한 사신을 위한 잔치에는 唐樂이 빠질 수 없었을 것³⁸⁾이다. 신라 귀족 사회에 다양한 악기가 질서있게 편성된 의식용 당악이 연주되었다면 이는 어떤 형태로든 신라의 음악 발전에 기여하였을 것이고, 악제를 편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黃鍾管 제작에의 음악적 욕구를 추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잡지」 ‘樂’ 편에서는 ‘신라 음악은 三竹, 三絃 등인데 三竹은 唐의 笛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⁹⁾ 鄉三竹, 즉 신라의 大箏, 中箏, 小箏은 신라에서 기원하였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단언하고, 뒤이어 만파식적 설화를 요약하여 수록하고는 「만파식적」의 내용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였⁴⁰⁾다. 그러나 이 기사는 만파식적 설화와 鄉三竹의 기원이 무관하지 않음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⁴¹⁾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신라음악은 가야금과 춤 그리고 노래로 대표되었고 관악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682년에 창건된 感恩寺址 三層石塔의 청동제 舍利器에서 출토된 횡적을 부는 악사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삼국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이 신라에 수용되면서 신라에서 관악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鄉三竹은 唐의 笛을 모방한 三竹과는 달리 고구려와 백제의 관악기를 참고하여 신라에서

37) 『三國史記』, 卷6. 「本紀」, 문무왕4년 3월. “遣星川丘日等二十人於府城 學唐樂”

38) 李惠求, 『한국사』 주32)와 같음. 「音樂」, 350쪽.

39) 주1)과 같음; 三竹亦模倣唐笛 而爲之者也

40) 주1)과 같음.

41) 장장식, 전제 논문, 116쪽. 주2)에서 장장식 교수는 “비록 (김부식이) 만파식적에 대한 古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는 했지만 鄉三竹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봄⁴²⁾이 온당할 것이다.

이러한 음악사적 상황으로 미루어 「만파식적」은 신라가 7세기 중반 이래 당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唐樂이 신라에 유입되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을 수용하여 신라 나름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필자는 『三國遺事』에 실린 「萬波息笛」을 神文王 즉위 초기에 왕실과 신라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행한 국가적 차원의 祭儀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설화로 인식하고, 본고를 통해 祭儀의 역사적 진실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만파식적」은 서사 단락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8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다시 첫째, 祭儀의 주체와 祭儀가 거행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둘째, 祭儀의 구체적 진행과정을 설화적으로 그려낸 부분, 셋째, 전승과정에서 첨가되어 만파식적의 위대한 功效를 강조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神文王이 대왕암에서 문무왕과 김유신이 마음을 합쳐 내려준 신라를 지켜갈 보배인 대나무를 얻었는데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세상의 모든 풍파가 잠잠해졌’다는 이 說話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海中龍이 된 문무왕과 天神이 된 김유신이 마음 합쳐 내려준 守城之大寶가 ‘소리로써

42) 송방송, 1985, 『韓國音樂通史』, 일조각, 97쪽 참조.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대나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대나무가 한국·중국 등의 전통 음악에서 12律 算定의 기준 척도가 되며, 나아가 度·量·衡器 제작의 기준 尺이 되는 黃鍾管 제정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신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神祇를 섬기고 上下가 화합할 수 있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고 우주적 질서를 인간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함에 있어 기준 척도가 되는 黃鍾管 제정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행사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黃鍾管 제정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만파식적 설화에서 海中龍(문무왕)과 天神(김유신)이 심心하여 내려준 대나무로 만든 黃鍾管은 天地 자연의 조화를 통일신라 사회에서 구현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통합하고, 왕실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정쟁을 종식시키고자하는 신라 지배층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파식적 설화는 삼국시대에 관악기를 갖추고 있지 못했던 신라가 唐樂을 수입하고 삼국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을 수용하여 신라 나름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만으로 「만파식적」의 역사적 의미가 온전히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만파식적」이 황종관 제정을 위한 국가적 祭儀의 상관물일 개연성은 충분하나 본고에서는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은 신라 시대의 음악 및 尺度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만파식적」류의 설화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1973. 영인본. 민족문화추진회.
- 『三國遺事』. 1983. 영인본. 서문문화사.
- 『小學』. 1990. 영인본. 학민문화사.
- 『禮記』. 1990. 영인본. 학민문화사.
- 『大學中庸』. 2005. 영인본. 학민문화사.
- 『小學』. 1990. 영인본. 학민문화사.
- 『文選』. 영인본. 문선연구회.
- 『三國史記』. 1973. 영인본. 민족문화추진회.
- 『三國遺事』. 1983. 영인본. 서문문화사.
- 『新增東國輿地勝覽』. 1969.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악학궤범』. 1979. 민족문화추진회.
- 『東京雜記』. 필사본.
- 『한국사』 3. 1984. 탐구당.
- 丁若鏞. 1981. 『輿猶堂全書』. 경인문화사.
- 김상현. 1981.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 김영숙. 1992. 「만파식적설화의 전승과 시적 변모 양상」.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 서경문화사.
- 김영태. 1973. 「만파식적설화고」. 『논문집』 11. 동국대학교.
- 두창구. 1990.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합. 강원도민속학회 · 강릉무형문화재연구소.
- 박진태. 2008. 「만파식적 설화의 서사적 구조와 역사적 의미」. 『국어교육』 125.
- 서유석. 2005. 「만파식적 설화의 건국 신화적 의미 연구」. 『인문학연구』 9.

- 서정범. 1975.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 『한국민속학』 8. 민속학회.
- 송방송. 1985. 『韓國音樂通史』. 일조각.
- 안병국. 2003. 「만파식적 설화의 문단 구분과 용의 정체」. 『자하어문논집』 18.
- 윤철중. 1981. 『國樂大事典』. 세광출판사.
- 장사훈. 1986.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국제어문』 6/7합. 국제대학교 국제어문연구회.
- 장장식. 1986. 「만파식적설화의 연구」. 『국제어문』 6/7합. 국제대학교 국제어문연구회.
- 한기호. 2001. 「만파식적설화연구」. 『연민학지』 9.
- 황패강. 1975. 『한국불교설화연구』. 일지사.

(2008. 5. 13. 접수 ; 2008. 5. 26. 채택)

김 남 형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한국한문학 전공)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역서로는 <星湖 李翼詩選> <書藝批評> <普覺國師碑>가 있고 논문으로는 '조선후기 근기 실학파의 예술론 연구' '성호 이익의 문학과 시세계' '성호의 비평의식' 등이 있다.

E-mail : nhk528@kmu.ac.kr

us in two ways. One is the labour of these days must be as ascetic practices and Tao-enjoying. The other is feeding ascetic practices and Tao-enjoying youth can be used as the model of solving youth unemployment in these days and they will be the constructor of after-modern society.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Legendary Tale 「Manpasikjeok」

Kim, Nam-hyeong(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 King Munmu, Kim Yu-sin, rite, Manpasikjeok, Hwangjonggwan, King Sinmun, reconciliation

「Manpasikjeok (萬波息笛)」 contained in 「Samgukyusa (三國遺事)」 is a legendary tale grounded on the national rite solemnized to settle the nationwide task with which Silla was confronted at the initial enthronement of King Sinmun (神文王). The part that this author took full notice of from the tale is that the thing that King Munmu who became Haejungryong (海中龍) and Kim Yu-sin that turned out to be Cheonsin (天神) granted in mutual agreement is the bamboo that ‘can rule the whole world with its sound’. This writer has figured out that the bamboo is a standard measure to estimate 12 yuls (律s) in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or China, and furthermore is a special divine one selected to establish Hwangjonggwan (黃鍾管), a scale to design Doryanghyeonggi (度量衡器). The establishment of Hwangjonggwan was a momentous

event on the national level since it was a standard measure to design tools which allowed the people to worship God, compose great music harmonizing high and low, and realize cosmic order in the human world.

It is thought that the Hwangjonggwan made of the bamboo bestowed by King Munmu and Kim Yu-sin in agreement inside the tale 「Manpasikjeok」 implies the dearest wish of the Silla's ruling class to realize the reconciliation of nature between heaven and earth in united Silla and unify the displaced people from Gogugyeo and Baekje, and extirpate the war resulted from the inner conflict of the royal family. From the viewpoint of music history, it is considered that 「Manpasikjeok」 symbolically describes the process that Silla without any wind instrument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mports Dang's music and accepts music from Goguryeo and Baekj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to create its own unique music.

Korean Studies as Cultural Studies ; Toward East Asian Korean Studies

Kim, Tschung-Sun(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 Hallyu (Korean Wave), East Asian Korean studies, Curriculum, Popular culture, Historical cultural studies

“Hallyu” is a new cultural phenomenon. It is not simply the current craze for Korean culture that is in vogue in East Asia, but is one of the